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중 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창인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조선근

새해, 새 출발! 이상없습니다

1월 한 달 내내 각 부서 특별 모임 갖고 새 출발
전도위 전도회 임직원 훈련, 실업인전도회 특별 집회 등

1월 1일, 이어지는 연휴 속에서 하고 싶은 일도 해야 할 일도 많았지만 모든 계획들을 뒤로 미루고 새벽예배와 I, II부 정식예배를 통해 새해 첫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한해의 문을 열었다.

이렇게 신년예배로 시작된 새해, 교회에서는 각 부서마다 다소 부산하지만 활기차게 한해의 달리기 속력을 가하고 있다.

1월 3일(수) 시무식, 1월 7일(주일) 공동의회, 1월 10일(수) 새해 첫번째 당회를 비롯하여 각 교구에서는 교구일꾼들이 지역별로 지역모임을 갖고 교구의 새해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모색하며 기도하고, 아울러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들을 가졌다. 또한 각 교회학교에서도 교사특별회의를 통해 교사들에게 신 사업을 소개하고 토의하며 새해를 기도로 시작하였다.

지금 교회학교 각부에서는 겨울계절 학교가 한창이다. 1월 22일 중등2부로 시작된 겨울 계절학교는 각 부서별로 3월 초까지 계속된다.

전도위원회에서는 전도회 임직원들을 중심으로 팀전도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전도회들은 지난해 연말에 있었던 총회를 속회하여 사업계획을 구체화시키는 작업들을 완료하였다. 그리고 교육훈련원 산하 성경연구원에서는 1, 2차에 걸쳐 '96 중현청지기훈련을 실시하여 새해 교회일꾼들의 헌신과 결심을 새롭게 했으며, 선교위원회에서는 지난 28일을 선교주일로 지키며 가든지 보내든지, 새해에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헌신하고 다짐하였다.

한편 실업인전도회에서도 임직원들을 새로 뵈고 새해의 첫 사업으로 실업인전도회 특별집회를 2월 1, 2일에 갖고 새로

운 출발을 다짐했다.

1월 한 달 동안 교회식당은 이런 모임들을 준비하느라고 주간 내내 분주하게 보냈다.

새로운 사람들로 새해를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

하고 마음을 합하여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일이다. 이런 일을 위해 교회나 각 부서, 개인들이 분명한 인식을 갖고 진지한 노력들을 해나가는 것을 볼 때 1996년은 기대해 볼만한 해가 될 것 같다. 새해, 새 출발은 이상이 없다.



▲ 선교헌신예배 지난 주일(28일)은 우리 교회에서 선교주일로 지켰다. I, II, III, IV부 예배시에 선교회를 작성하고, 선교위원회에서는 선교사 및 선교 전사회를 가지며 선교회 총회와 선교헌신예배 등을 통해 선교 '95를 돌아보며' '96년도 선교를 계획하고 전망하며 선교적 헌신을 통해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다짐하며 재충전하였다.

'96 중현청지기 훈련 추가 실시

2월 14일 수요일 I, II부 예배시에

본 교회 교육훈련원 산하 성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96 중현청지기 추가훈련이 오는 2월 14일 수요일 I, II부 예배시에 실시된다. 이 추가훈련은 지난 1월 19일과 26일에 실시된 1, 2차 청지기훈련에 참석하지 못한 직분자들을 위해서 실시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1, 2차 청지기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번 실시되는 추가훈련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이번 추가훈련은 수요일부 예배시에 김창인 원로목사, II부 예배시에는 윤영탁 협동목사를 강사로 진행된다. 이번

추가훈련은 수요일예배와 겹치는 관계로 1, 2차와 다른 내용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번 1, 2차 청지기훈련에 참가했던 직분자들과 성도들도 다시 참석하여 함께 은혜받고 한번 더 사명을 고취하고 결심을 새롭게 하는 시간으로 삼으면 좋을 것이다.

▼ 지난 1차 청지기훈련 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자!' '봉사와 전도로 열매 맺자!' '죽도록 충성하자!' 라는 훈련목표를 제창하며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96 중현청지기들

예비신랑신부교육부(예신부) 안내

우리 교회에서는 1995년부터 예비신랑신부교육부(예신부)를 신설하였다. 이는 최근에 결혼의 신성함이 무시되고 이혼율이 급증하는 등 결혼가정이 사회의 중대한 문제로 주목받게 됨에 따라 결혼과 가정에 대한 신앙교육 강화의 필요를 절감하여 결혼전 예비부부들에게 8주 과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 것이다.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혼과 가정생활을 누리기를 소망한다.

1. 수강대상

- ① 본 교회 교인으로서 양가의 허락을 얻어 결혼을 준비중인 남녀
- ② 타 교회출석중인 자로서 본 교회에서 결혼예식을 하고자 하는 남녀
- ③ 본 교회 목사의 주례와 결혼예배장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필히 수강해야 함.

2. 등록절차

- ① 예신부 재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소정양식, 사무국 비치).
- ② 사무국에서는 매일, 예신부 사무실에서는 매주일마다 등록 접수

③ 등반 및 교육은 매월 첫주 기준으로 기별 운영한다.

3. 교육일시 및 장소

매주일 오전 10시 50분 ~ 12시 40분
교육관 208, 209호

4. 과정수료

8주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본교회 예신부 수료증을 수여함

5. 교육과정과 강의 강사

- ① 성경적 결혼관
장우천 목사(예신부 지도)
- ② 김소현 결혼준비
이승득 집사(예신부 교사)
- ③ 건강한 자아형성과 성격테스트
박종화 집사(정신과 전문의)
- ④ 가정법률상식
신선길 집사(변호사)
- ⑤ 가정의학 상식
손철 집사(산부인과 전문의)
- ⑥ 부부대화 패턴토의
- ⑦ 배우자 가족과 바른 관계 맺기
이경현 권사(예신부 부감)
- ⑧ 건강한 부부생활
정지자 사모





충현강단

● 김창인 목사의 시편 강해 ●

성도의 피난처

(시 11:1-7)

다윗은 사울 왕의 둘째 사위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원수 골리앗 장군을 때려 눕히고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건져낸 구국공신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아도 사울 왕은 다윗 장군을 사랑하고 아껴야 될 사람임에 틀림이 없는데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을 안 다윗의 친구들이 다윗을 살리려고 어서 도망가라고 권면하지만 권면을 받은 다윗은 도망을 가지 않습니다. "나는 도망 안갈테야. 나는 하나님의 품 안에 이미 피난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도망갈 필요도 없고 도망갈 때도 아니고 도망갈 곳이 딴 데는 없어."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지은 것이 시편 11편입니다.

1. 친구들의 권면과 다윗의 대답이 어떠합니까(11:1, 2)

(1) 새같이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내 영혼더러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인고" (11:1)라고 했습니다. 새가 포수를 만나면 숲이 우거진 산으로 도망을 가서 이 나무 저 나무로 숨어야 합니다. 친구들은 안타까와 다윗을 이같이 도망가라고 권면합니다. '새같이 도망가라' 하는 말은 첫째, 자연의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큰 산으로 도망가면 숨을 데가 많겠다는 말입니다. 둘째, 숨겨 줄만한 사람이 많은 고향으로 도망가라는 말입니다. 셋째, 어떤 백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동지를 틀라는 말입니다.

(2) 나는 여호와께로 피하겠다고 대답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11:1)이라고 다윗은 대답했습니다. 권면을 받은 다윗 장군은 "내가 벌써 피난했어. 너희들은 내가 이리때 가운데 양 한 마리처럼, 매 열 마리 가운데 참새 한 마리처럼 위태로만 보이냐? 그렇게 보일게다. 그러나 나는 벌써 하나님 품에 지금 피난되어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야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톱대고 환난풍과 없지요" 이런 다윗 장군은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고집쟁이입니다. 미련쟁이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의 군대가 헬레사를 잡기 위해 헬레사가 살고 있는 도단을 둘러싸고 포도밭을 때 헬레사의 종 계하시어는 아람 군대만 보았습시다. 그러나 헬레사는 아람의 군대가 오는 것을 알고 있었습시다. 알면서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을 늦게까지 버티며 내다보지도 않고 도망도 안갔습니까? 그것은 헬레사는 벌써 하나님의 품안에 자기가 숨어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계하시의 눈을 밝게하여 주옵소서!" 헬레사의 기도도 계하시의 영안이 열리게 조금 전에는 아람의 군대만 보았는데 이제는 아람의 군대가 둘러싼 그 안은 헬레사를 보호하는 천군천사가 두루 지키고 있는 것을 보았습시다. "야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톱대고 환난풍과 없지요" 이런 다윗 장군은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고집쟁이입니다. 미련쟁이입니다.

사람들은 위태로운 일을 만나면 피난처를 찾습시다. 또 위태로운 일을 만나면 많은 사람이 거짓말을 피난처로 삼습시다. 목사님, 장로님도 갑자기 위태로워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 피난처 속에 숨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이 피난처가 되지 못하니 문제입니다. 거짓말은 피난처가 아니라 마귀가 들어오는 대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짓말로 위태로운 일을 면하려고 하는 사람 되지 맙시다.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3) 마음이 바른 자를 하나님이 숨겨주신다고 대답합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임이여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11:2)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자는 마음이 바른 자, 겸손한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직접 원수 잡지 않는 자입니다. '마음이 바르다'는 말의 뜻은 첫째, 거짓말할 줄 모르는 정직한 사람을 말하고 둘째, 교만이 없이 겸손하다는 말이고 셋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기다린다는 말이고 넷째, 개인이 개인의 원수를 잡지 않고 하나님이 원수 잡으실 때까지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바른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시어 하나님은 그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원컨대 저와 여러분은 다윗 장군처럼 거짓말할 줄 모르는 정직한 사람, 교만할 줄 모르는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2. 터가 무너질 때 신자의 취할 태도는 무엇입니까(11:3, 4)

(1) 터는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11:3)라고 했습니다. '터가 무너진다'는 말은 첫째, 의로운 정치가 무너진 정치 혼란기를 말합니다. 정치는 공정한 정치를 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이 없는 공평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울 왕의 정치는 터가 무너진 정치입니다. 공의가 없습니다. 둘째, 정당한 것이 뒤집혀 있어진 것을 말합니다. 오히려 의로운 사람이 억울함을 당하고 정직한 사람이 패배 취급을 당하는 때가 터가 무너진 때입니다.

(2) 무너지지 아니하는 터위에 집을 지어라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와 그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여 그 눈이 인생을 통솔하시며 그 안목에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11:4)라고 했습니다. 터가 무너질 때에 우리에게 할 일은 첫째로, 남을 저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터가 무너지는 때가 오면 불만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세상을 저주하게 됩니다. 저주하다가 가는 쪽같이 약해지게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보좌에 터를 세워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와 그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여" 세상 터는 다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무

위태로운 일을 만나면 많은 사람이 거짓말을 피난처로 삼습시다. 그런데 거짓말이 피난처가 되지 못하니 문제입니다. 거짓말은 피난처가 아니라 마귀가 들어오는 대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짓말로 위태로운 일을 면하려고 하는 사람 되지 맙시다.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너지는 터가 아닙니다. 구원의 성터, 하나님이 계시는 은혜의 보좌는 악마가 공격할 수도 없고 악마가 점령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 에다가 소망을 두고 거기 가서 보고서를 낼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터가 무너지면 신자는 무엇할꼬,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니 그 곳을 바라보고 그 곳을 위하여 선한 일을 쌓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사정을 살펴봐 주십니다. "야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톱대고 환난풍과 없지요" 이런 다윗 장군은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고집쟁이입니다. 미련쟁이입니다.

3. 하나님의 심판의 공정성이 어떠합니까(11:5-7)

(1) 악인을 미워하십니다

"여호와와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11:5)라고 했습니다. '지금 사울 왕이 의인을 죽이려고 하는 나쁜 일에 동참해서 어두운 곳에서 활 시위를 당기고 있는 저 무리들을 사람은 못보지만 하나님은 다 보신다. 하나님은 의인을 죽이려고 활을 당기는 사람을 다 보시고 활촉에 맞아 죽을 위험성이 있는 나도 보신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 시간이 얼마 지나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되면 여호와와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비오리로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보고 기뻐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렇지만 어두운 데서 나를 쏘려고 하던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못본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에 터를 정한 다윗의 신앙고백입니다.

(2)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체체라내 불과 유향과 뜨거운 배람에 저희 잔의 소독을 하리로다" (11:6)라고 했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판을 당하는데 그 심판은 불과 유향과 뜨거운 배람입니다. 이와같은 심판이 그물처럼 내려 옵니다. 이 말씀을 거역하고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탄을 해석한 사람이 많은 생겼습시다. 나는 그 말에 꼭 맞는데 안맞는지 모르겠습시다만 아무튼 저옥물에는 총알처럼 쏘는 것이 없습시다. 불과 유향과 뜨거운 배람에 영원히 악인이 매여야 되는 소독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한 사람을 살피시고 그 생각을 아시고

그 말을 아시고 그 행동을 아실 뿐만 아니라 기록을 해놓고 증거를 내놓고야 심판을 하십니다.

(3) 정직한 자는 상급을 주십니다

"여호와와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비오리로다" (11:7)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산 사람은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말을 아시고 그 행동을 다 기록해 놓으셨다가 그대로 상급을 주십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쓴 지 3년이 못되어서 임금이 되었습니다. 임금이 된 다윗은 만민 위에 존경을 받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 모시고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는 반열에 서신 분 가운데 가장 상석에 서실 것만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 1:1)라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 첫장 첫절에 나오는 이름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이만큼 있었습시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세상 세력 뒤에 숨으려고 하지 말고, 거짓말 뒤에 숨으려고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품안에 숨을 줄 아는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은 터가 무너지는 날이 언제 올런지 모릅니다. 내가 믿던 세력, 내가 사랑하던 재산, 내가 무엇이 라고 뽐내던 무엇, 내 육신의 건강도 언제 무너지는 날이 올런지 모릅니다. 세상 의 모든 것 무너지는 때가 올 때에 낙심하고 원망하고 저주하지 말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정성껏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시다.

하나님은 선악간에 다 보십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영광을 누리게 되고, 악을 행하던 사람은 사람에게 모르는 곳에 악을 행해도 하나님은 다 기록해 놓으셨다가 불과 유향과 뜨거운 배람으로 갚으시는 날이 옵니다. 저옥에 가서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땅위에세도 하나님 앞에 패립받은 사람은 그 마음에 저옥불이 붙습시다. 여러분은 불과 유향과 뜨거운 배람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 의 뜻으시는 얼굴을 웃으면서 대하고 찬송부르는 평생을 켜시다가 하늘나라에 세 뎡류관 받기를 소원합니다.



핸드벨의 선물과 함께

정 경 자

(권사, 핸드벨코어 대장)

1988년 8월 28일에 창단된 충현 핸드벨코어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꽤 권위있는 팀으로 알려져 있다. 창단 초기에 참여했던 대원들이 아직도 꿈을 갖고 자리를 지키며 핸드벨코어로 주님께 찬양드리고 있다. 국민학교 6년생으로 핸드벨코어에 입단하여 지금은 어엿한 사회인으로, 대학생으로 자란 대원들을 보면 그 호모함을 감출 수가 없다. 이들에게 눈물겨운 감사와 칭찬의 말을 서슴지 않고 건네고 싶다.

왜 이들은 핸드벨을 그토록 사랑하는가? 그들이 연주하는 벨의 청아한 음색과 아름다운 선율이 퍼져 나갈 때,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국의 소리인양 도취되며, 다양한 주법으로 그 어떤 악기도 지닐 수 없는 기교와 여운을 통해 주님께 찬양드리고 그로 인해 자신들도 기뻐 풍성한 은혜를 받기 때문이라.

핸드벨은 지금부터 약 400년 전에 영국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가 있는데 80%의 구리와 20%의 주석으로 만들어진다. 처음에는 종탑위에 걸렸던 타워벨(Tower Bell)을 치기 위한 연습용으로 개발된 것이 차츰 발달되어 지금의 핸드벨이 되었고 피아노보다 한 옥타브 높게 조율되어 있다. 현재 미국에는 1500여개팀이 활동하고 있고 캐나다, 일본, 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 핸드벨팀의 활동이 두드

러지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약 40여개팀이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충현의 핸드벨코어가 기술적으로나 음악적으로도 매우 실력있는 팀으로 손꼽히고 있다. 또 금년 8월에는 미국 뉴멕시코에서 국제대회가 있는데 우리 충현 핸드벨코어가 우리나라의 대표팀으로 선발되어 작년 여름부터 열심히 연습에 임하고 있다.

나라와 교회를 빛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고 대원들의 맘을 모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다. 당회에서 허락하시는 대로

출국 수속을 시작하여 만반의 준비를

다할 예정이다.

멀리 대전에

서부터 왕래

하시며 우리

핸드벨

코어를

발전시키고

자도

하며 애쓰

시는 지휘

자 송계월

선생님과 비

록 지휘봉을

놓으셨지만

자금도

우리 핸드벨

코어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

시는 민배라

선생님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아울러 온

충현 성도들께

핸드벨코어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다.



신 〇〇 전도사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셨다. 심방 중 병판길에 넘어진 것이다. 갈비뼈가 두 개나 부러졌단다. 많은 사람이 걱정하며 문병을 하였다. 입원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계시는 전도사님, 동역자들의 사랑에 고마워하시는 전도사님을 보면서 고통 중에서도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전도사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시기 전의 일이다. 평판길에 넘어진지 일주일이나 지나도록 덜그럭 거리는 가슴의 갈비뼈 소리를 들으면서도 고통을 참아왔단다. 이제는 더이상 참을 수 없어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이제 오면 어떻게 하느냐, 당장 입원하라고 하셨다. 아예 전도사님 하시는 말씀 "내일은 주일이라서 도저히 입원할 수 없으니 주일 지나고 월요일날 와서 입원하면 안됩니까?" 하셨다. 의사는 어이가 없어서 그런 말을 하려면 당장 여기서 나가서 오지말

라고 하더라나.....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이다. 바쁘게 한 주일을 마무리 하고 이제 주일도 저녁 예배 드리기전 한 시간 정도 남은 때였다. 조금 쉬고자 하는데 갑자기 가슴이 심하게 뛰기 시작하면서 숨이 막혀 오기 시작하였다. 아무래도 그냥 있으면 안될 것 같아 가까운 종합병원을 찾아 응급실 문을 두드렸단다. 응급실에 있는 의사들은 심전도 검사, 혈액검사 등을 하면서 부지런히 조사도 하고 투약도 하였다. 오

오래전 동료 전도사로부터 "전도사님, 파인애플 이야기 알죠?" 하는 질문을 받았다. 나는 쉰 파인애플 이야기인가 싶어 되물었다. "무슨 파인애플이요?" 이렇게 해서 나는 파인애플 이야기와 만나게 되었다. 굉장히 좋은 책이니 꼭 읽어보라는 그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서점을 찾았다. 큰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데 서점 직원이 전내준 책은 두께도, 크기도 보잘것 없는 작은 책이었다.

"이게 파인애플 이야기 맞아요?" 나는 되물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나 사람은 외모를 본다더니 그 얇은 책 속에 무슨 그리 좋은 내용이 있겠나 싶은 생각에 책장을 넘기니 그림까지 있었다. 별 기대없이 한 장, 한 장 페이지를 넘기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다. 거기에는

파인애플이 익는대로 선교사가 맛보기도 전에 없어지는 것이었다. 이 선교사는 파인애플을 먹기 위해 그들을 설득하다 못해 병원분, 상점문을 달아보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파인애플이 익는 족족 끊임없이 파인애플을 훔쳐가는 원주민, 자신의 권리를 양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권리를 주장하다가 마침내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그 파인애플원을 드리기로 권리를 포기하는 선교사와의 8년간에 걸친 파인애플 싸움 이야기.

그런데 선교사가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파인애플원을 드리고 난 얼마 후, 원주민들이 선교사를 찾아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당신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보군요"

얼마나 충격적인 말인가! 자신의 권리

책을 읽읍시다

합당한 희생

(원제 / 파인애플 이야기)



정 양 순

(전도사, 제13-1교구 담당)



『합당한 희생』 원제 / 파인애플 이야기, 김두화 옮김, 출판사 / 나침반

바로 나의 못난 자화상이 있었다.

당연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줄 알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연히 내 마음의 왕좌에 계시고 나는 그의 종이고, 그는 나의 주인인 줄 알았다. 아니, 당연히 주인이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그 당연한 사실이 나의 삶의 세밀한 부분들에서는 간과되고 있음을 보았다. 그리고는 스스로 속고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주님께 드리지 못한 파인애플원이 많이 있었다. 책의 줄거리는 대략 이렇다.

깊은 밀림에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가 있었다. 병원도 하고 생필품도 대주며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곳은 깊은 밀림지대인지라 신선한 과일을 맛보기가 어려웠다. 다른 선교부로부터 파인애플 묘목을 얻어다가 심고 3년을 기다려 드디어 맛있는 파인애플을 먹게 되는가보다 할 때로부터 사건이 시작된다.

원주민을 고용하여 샅을 주고 묘목을 심게 했지만 밀림의 법칙은 열매를 심는 사람이 먹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를 결코 양보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쳐온 것이 그들에게는 가르침이 아니었던 것이다.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일하시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원주민들은 하나님의 파인애플을 훔쳐간다는 사실을 두려워했고 선교사의 합당한 희생을 보고서야 파인애플을 훔쳐가는 일을 중지했던 것이다. 더 많은 원주민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8년간에 걸친 이 사건은 이렇게 매듭이 지어졌다.

선교사는 원주민을 위해 의자를 고쳐준다거나 하는 자질구레한 일을 할 때에도 불평하지 않았다. 자신의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성경번역이나 원주민 선교가 부진해도 하나님께서 보잘것없이 보이는 일들을 위해 시간을 내라 하시면 기꺼이 순종하게 된 것이다.

내 권리라고 주장하며 희생하지 못하는 파인애플원이 내게는 과연 무엇일까 두고두고 생각하게 하는 좋은 책이다. 처음 이 책을 본 이후 지금까지 나는 가끔씩 꺼내들고 읽고 또 읽는다.

정경다리

일과 건강(健康)

이 홍 성

(목사, 중동3부, 제 5교구 지도)



라고 하더라나.....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이다. 바쁘게 한 주일을 마무리 하고 이제 주일도 저녁 예배 드리기전 한 시간 정도 남은 때였다. 조금 쉬고자 하는데 갑자기 가슴이 심하게 뛰기 시작하면서 숨이 막혀 오기 시작하였다. 아무래도 그냥 있으면 안될 것 같아 가까운 종합병원을 찾아 응급실 문을 두드렸단다. 응급실에 있는 의사들은 심전도 검사, 혈액검사 등을 하면서 부지런히 조사도 하고 투약도 하였다. 오

후 11시쯤 되어서 담당의사가 목사님에게 말했다. "아무래도 입원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심장마비로 인한 돌연사의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목사님은 "의사 선생님 퇴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해야 할 일이 많아요" 라고 말하였단다.

사람은 절박할 만큼 위기의 순간에도 자기의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을 어찌하고 입원하라는 말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내가 없으면 안되는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 일에 곧잘 부딪히게 된다. 어떤이는 이것을 교역자의 사명감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이 비단 사명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 아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한 두 번쯤 이런 일을 겪어 보았을 것이다.

우리는 어느 순간 일을 눈앞에 두고 절박한 건강의 위기를 당하게 될 때가 있다. 이때 우리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감당해 내는가?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이러한 일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뿐이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 나 의지하는 대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 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찬송가 342장)

토막소식

◆ 중등1부는 1월 29~31일까지 2박 3일 동안 기도원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수련회를 가졌다. 특별히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31일(수)에는 출발하면서 내리기 시작한 눈 때문에 7시간만에 교회에 도착했다. 중등1부의 학생들은 터널 안에서의 지루한 시간에도, 창밖의 추운 날씨에도, 부모님들의 걱정도 잊은채 시간시간마다 환호했다(신기록을 세웠다고). 교회에서 저녁을 줄 것이라는 놀라운 믿음(?)도 소유했던 천진난만한 그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모습이었다.



◆ 새가정부는 오늘(2월 4일)부터 2부 교제의 시간과 3부 분반공부 시간을 교체하여 실시한다. 또 2월 10일(토), 새가정부실에서 오후 5시~9시까지 계절학교를 실시한다. 새가정부 가족들과 새가정부에 해당하는 모든 성도들의 참여를 바라고 있다.

◆ 장년1부는 40~49세까지의 전 교

인을 대상으로 매주일 낮 12:30~1:30에 교육관 407호에서 정광욱 목사의 지도로 성경공부를 한다. 강의 내용은 ① 현대인의 삶 속에서 본 성경 ②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육성 ③ 말씀을 통한 삶의 문제들 해결 ④ 찬양, 말씀, 기도, 친교생활 등으로 말씀을 중점적으로 배우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대학부 겨울수련회가 '예수·복음·자유·삶'이라는 주제로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기도원에서 열렸다. 로마서를 통해 진정한 자유가 무엇이며, 자



유를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성령님께 의뢰하는 삶을 위해 기도하고 결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찾아간 곳곳마다 대학부의 준비모습은 참으로 젊음 그대로였다. 최첨단의 장비를 동원해 녹음하며 하루하루 그날그날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손길들, 최선의 장비(?)인 위키토키와 순발력과 민첩함으로 곳곳에서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 스텝들의 모습, 한끼의 식사를 위해 성구를 외우고 율동도 하는 모습 등 풍성함 그대로였다.



금주에 기도할 제목

1. 1월 한달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2월 한달도 교회와 직장가 가정을 지켜 주소서.
2.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희생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담임목사님을 축히 허락주소서.
3. 원로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지켜 주시옵시고, 모든 교역자들이 올 한해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시며, 역량을 더하여 주소서.
· 6일(화) 채육인신교회 법인이사 취임예배 설교
· 7일(수) 정기당회
4. 모든 일꾼들이 하나님 뜻대로 맡겨진 직분에 겸손히 충성하면서 각 구역과 부서별 공동체가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하여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5. 총현의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예배 시작 10분 전에 도착하여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드림으로써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일을 성수하며, 생활 중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소서.
6. 등록하는 새가족들이 모두 천국합격자들이 되게 하시고, 양육하는 양육위원들 에게 큰 힘과 능력을 주시며, 모든 성도들이 전도에 동참하게 하소서.
7. 이 민족을 하나님이 축복하사 복음으로 통일이 되게 하시고, 북한의 굶주린 동포들에게 영육간의 양식이 제공되게 하시고, 김영삼 장로님과 손명순 권사님 에게 믿음과 지혜와 육신의 건강을 더하여 주소서.
8. 제2교육관 공사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진행되게 하시고, 특히 겨울공사에 차질이 없게 하소서.
9. 모든 성도들과 기관과 교회에 선교의 열기가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선교사님 들의 사역과 가족의 건강을 축복하시고, 서만수 선교사의 건강(신장)이 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10. 교회학교의 수련회 및 겨울성경학교를 통하여 부흥하게 하시고, 교사들에게 역량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게 하소서.

'모슬렘을 위한 30일 기도'(1월 21일 ~ 2월 19일)
모슬렘의 라마단에 대한 역라마단 기도운동에 동참하면서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한정은
(청년1부 회원)

지난 92년 7월 7일부터 8월 14일까지 14명으로 구성된 우리팀은 이집트에서 선교지를 탐방하며 훈련을 받았다. 17시간의 비행과 마치고 카이로공항에 도착한 것은 밤 11시경, 바가지 요금을 붙여려는 운전기사들과 육신각신하다 자동차를 빌려 선교사님 댁에 도착한 것은 12시 30분경이었다.

선교사님댁에 도착하여 4층에 짐을 옮기고 우리 나무로 된 저상에 둘러앉아 기도를 드렸다. 집주인인 모슬렘인이 외부에서 손님이 왔기에 반갑다는 표시로 왔다갔다 하느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눈을 뜨고 기도하라고 하셨다. 모두 취침하고 난 뒤 새벽이 되어 깨어보니 4시 반경 마을전체에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어떤 사람은 스피커에 대고 기도를 했다. 한참을 그런 후에 멈췄다.

모슬렘들은 하루에 5번씩 이렇게 공동체가 알라에게 기도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보고 듣게 되는 것이었다. 길을 걷다가도 기도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마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다. 영상 35도 이상 기온에서 우린 외부로 출입을 할 때면 늘상 이런 모습을 보며 지나갔다. 마을의 지대가 높은 쪽으로 올라갔을 때 이들의 기도소리는 마을전체를 덮어서 기도소리가 하늘을 채우는 것으 느껴진다.

한번은 이집트에서 가장 큰 모스크

사원을 방문한 적이 있다. 우리는 그 사원의 광장을 위에서 내려다 볼 수 있는 어느 건물의 뒤편에 자리를 잡았다.

그 사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이들은 한 줄 한 줄 줄을 섰다. 가로로 25줄 정도 세로로 35줄 정도 머리엔 모슬렘 특유의 두루마리 천을 덮고 옷은 아래 위로 붙은 두루마기 형식이었는데 아라비아나 나이트에 나오는 전형적인 복장이었다. 이렇게 줄이 나란히 서지자 이제 함께 땅에다 이마를 대고 양팔과 두 다리를 가지런히 모아 뒤로 한 뒤 그들의 신 알라에게 절을 하는 것이었다.

모두가 여러차례 이러한 모습으로 엎드렸다 일어섰다 할 때 창쪽에서 내려다 보던 나는 너무나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다. 피조물인 인간이 그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못하고 다룬 신에게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왜 보내셨는지 이해할 것 같다. 말없이 모슬렘을 향해 가슴앓이를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나는 깨닫지 못했었던 것이다.

지금 이시간 글을 쓰면서도 나의 마음 가운데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른다. 제자들에게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당부하며 땅에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 품으신 것은 바로 나 자신만이 아닌 바로 열방이라는

것을,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 안타까워하신 예수님, 그리고 자신의 피로 온 땅의 죄를 덮기 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모슬렘을 품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 시간 간다.

이집트를 비롯하여 아프리카 중 북쪽의 85%는 모슬렘들이다. 중동지역의 거의 대부분이 모슬렘화되었고 중국과 유라시아 대륙, 전세계에 걸쳐 모슬렘의 인구는 12억이나 된다.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인도네시아만 해도 85%가 모슬렘화되어있고 또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구밀도를 가지고 있다. 터키의 행정구역 중 104곳 안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다고 한다.

모슬렘! 우리교회가 저항하는 선교방향중 하나가 모슬렘선교이다. 이제 1월 21일부터 2월 19일 모슬렘들은 한 달 기간을 해를 때부터 해질 때까지 금식하며 알라에게 기도를 하게 된다. 12억의 인구가 이 일에 동참하게 된다. 이 시기에 우리 총현의 식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본다. 추수할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하신 예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낼까"라고 묻는다면 우리 각자가 또한 대답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시간 나는 또한 그들을 향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전 세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려고

있다고하는 소식을 받고 있다. 하나님은 기도의 용사들을 통해 기도 네트워크를 형성하시고 이들과의 영적 전쟁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모슬렘을 묶고 있는 이 어두움의 세력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의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그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가운데 우린 모슬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원자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여야 할 것이다.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자에게도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 했는데 그들의 영혼구원을 놓고 간절히 울부짖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길 앓겠는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린 각 나라와 민족가운데서 모여온 모슬렘으로부터 개종한 여러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소리도 듣게 되리라. '당신의 기도로 আমি 암아 내가 이렇게 여기 올 수 있었노라.'

우리가 눈물로써 씨를 뿌리자. 모슬렘이 주께 돌아오도록. 그래서 지난날 우리가 집자군 원정이란 이름하에 그들에게 저질렀던 온갖 잔혹, 도적질과 그들에게 입힌 상처(육체적, 정신적) 등 우리가 그들에게 잘못한 것들을 그들이 용서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옮겨져도.

기도를 통해 우리는 가지 못할 나라가 없을 것이다. 우리의 사랑을 기도에 담아 하나님께 올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여 주실 것이며 또한 복음의 문이 열렸지 않은 곳을 향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미사일을 쏘아대는 것처럼 능력있게 그 땅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실 것이다.